

C_M_054 영감본

1 개요

영감본은 도깨비신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영감신은 서울 김치백의 아들로 태어나 행실이 나쁜 탓에 동네에서 쫓겨나 송영감 집에 머물면서 부자가 되게 해주다가 송영감에게 내쳐지자 곳곳으로 흩어져 선양으로 좌정하였다.

2 내용

김치백의 아들 삼형제는 서울 남대문 밖에서 솟아났다. 열다섯이 되니 동네 존장을 박대하고 처녀의 안 좋은 소문을 내곤 하니 마을에서 만주로 귀양을 보내었다. 삼형제는 송영감네 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다음날 영감네가 너무 가난하니, 삼형제는 자신들은 잘 먹으면 잘 먹은 값을 하고 못 먹으면 못 먹은 값을 한다고 하였다.

영감이 무엇을 먹느냐 물으니, 삼형제는 소든 돼지든 닭이든 한 마리를 다 먹고, 수수떡, 수수밥, 돼지고기 안주, 소주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잘 대접하면 부귀영화 시켜주겠다고 하였다. 송영감이 이들을 잘 대접하였더니 삼형제가 거부가 되게 해주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삼형제가 분명 생도깨비이니 예방을 하지 않으면 삽시에 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송영감이 꾀를 내어 삼형제에게 경상도 안동땅을 도려내어 올레에 가져다 놓으면 계속해서 모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였다. 삼형제가 그리 하마고 하였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하였다.

송영감은 삼형제를 묶어서 올레 나무에 묶어놓고 장검으로 세 도막을 내었더니, 삼형제가 일곱 형제로, 다시 아홉 형제로, 또 열두 형제로 벌어졌다. 송영감이 주문을 외우니 삼형제가 죽은 도깨비 혼령이 되었다. 송영감은 다시 도깨비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백마를 잡아 가죽을 올레의 담에 걸쳐놓고, 백마의 피를 울안에 뿌려놓았다. 이쯤 되니 도깨비들은 제각기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위로 삼형제는 서양각국, 버금 삼형제는 일본 대판, 그 다음 삼형제는 서울로 가고, 아래 삼형제는 강경 바닷가에 앉아 천기를 보니 제주도가 좋아 제주도로 가기로 하였다. 동복 장씨 선주, 김녕 차동지가 강경으로 곡식 장사를 갔다. 삼형제가 이들에게 자신들을 데려다 주면 부귀영화를 시켜주겠다고 하였다. 이리 하여 삼형제는 제주도로 들어와서 곳곳의 선양으로 좌정하였다.

③ 특징

한경면 조수리에 거주하던 여무 조술생의 전승자료이다. 요즘 전승하는 영감본풀이는 서사성이 그다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서사성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례이다. 도깨비가 능력이 많으나 안동땅을 떼어 옮기는 것만큼은 할 수 없었다는 대목이 흥미를 유발한다.

④ 핵심어

김치백, 삼형제, 서울, 남대문, 송영감, 생도깨비, 안동땅, 백마, 대판, 동복, 김녕, 강경, 선양

⑤ 원전 서지사항

영감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⑥ 관련 자료